

# 폭우 피해 막는다...AI 활용 침수 예보

### 환경부, 홍수피해 방지 대책 발표...예보 3시간→6시간 전으로 앞당겨 광주·경북·경남 협약...빗물 터널·홍수 조절댐·홍수 방어 인프라 구축

환경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체계적인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와 홍수취약 지구에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도입하고, 극강 강우에 대비한 홍수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를 위해 2024년까지 광주·포항·창원 등지에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예보를 시행한다. 관심·주의 수준으로 제공되던 홍수정보도 '주차침 침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공된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3차원 디지털 공간에 하천법람, 도시침수 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구현하는 기술이다. AI를 활용해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위를 예측해, 홍수 예보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예보 지점도 75개에서 223개

로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예보제도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광주·경북·경남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남 지역에도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등 28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강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홍수 방어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홍수 방어 대책도 수립한다. 지자체별로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하수관로 정비의 의무화하고, 맨홀빠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정비와 하수도 개량을 위해 예산도 확대 투입한다. 광주시 광주천, 순천시 순천서천, 광양시 수어천 등에는 특정한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해, 지역 맞춤형 홍수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빗물 터널, 홍수조절댐, 지역맞춤형 홍수방어 인프라가 구축된다.

마지막으로 홍수취약지구로 선정된 광주·전남 65개 지점에서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인근 주민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협업 시스템과 응급 복구 체계 등이 구축된다. 홍수취약지구 인근 주민과 협의회를 구성해 홍수위험 요소와 대책 등을 공유하고,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홍수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상청과 홍수통제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위기대응 회의의 참석 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확대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소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수위 상승 및 도시침수발생에 대비하는 기관 합동 모의 훈련도 실시된다. 광주시도 오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후위기와 홍수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2020년 영산강 홍수 원인 분석, 도시 홍수 특성화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슬기로운 에너지전환' 교육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오는 25일부터 '슬기로운 에너지전환 : 2024 에너지전환마을 준비하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3시간씩 6주동안 진행된다. 첫 4주간은 이론수업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기초 개론, 실무, 사례 등을 위주로 강의한다. 다음 2주간은 에너지전환마을 투어, 선진지 배움 여행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 에너지전환마을을 준비하는 마을 공동체

가 모집 대상이다. 마을별로 반드시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30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정은진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2025년 탄소중립은 광주시민들의 실천으로 실현이 된다"며 "광주의 모든 마을이 에너지전환마을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환경운동연합, '미래세대 물교실' 참여 학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9일까지 '미래세대 물교실'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미래세대 물교실은 소중함 수자원을 슬기롭게 사용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물 교육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해 강의한다. (사진) 기후변화와 물 재해(홍수와 가뭄), 물 절약과 순환 등을 주제로 학년별 수준에 맞춰 교육이 이뤄진다.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초등학교는 80분, 중·고등학교는 90~100분 수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지역 중·초·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교육기관 등 70개 교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민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강사는 "물 교육을 통해 수돗물을 아끼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



다. 물 절약 습관을 기르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를 막는 길이다"고 교육취지를 설명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서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정서·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16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독거어르신을 위한 정서·우울 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총 192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예·미술활동·반려식물 키우기 등으로 구성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을 예방하고 다

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한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이외에도 집중 건강관리, 한센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성환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구 '아동구청참여단' 발대식. 광주시 남구는 지난 12일 오후 3시에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아동구청참여단 발대식'을 가졌다. 아동구청참여단원으로 선정된 36명은 내년 5월까지 남구 아동에게 필요한 실질적 정책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 남구 제공>

## '작은 섬' 주민들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

### 전남 15곳 등에 '공도방지 사업'...5년간 매년 50억씩 지원

완도 대제월도·양도·장도·죽굴도·초안도·허우도, 진도 갈목도·독거월도·소성남도·탄항도, 고흥 대옥대도·수락도·진지내도·점도, 신안 소포작도. 이름도 생소한 이곳은 전남의 '작은 섬'이다. 이 섬들이 작은 섬으로 불리는 이유는 각각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딴 섬 주민들은 매년 물과 전기 걱정이지만, 올해부터 이 걱정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전남 15곳의 작은 섬을 포함한 전국 25곳의 작은 섬에 대해 '작은 섬 공도방지 사

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작은 섬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 때문에 섬을 떠나 무인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이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이다. 앞으로 5년(2023~2027년)간 매년 50억씩 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따라 작은 섬에 지원되는 사업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 시설 등 4가지 분야다. 섬의 필수 시설인 식수시설과 전력시설은 염수제

거기 발전기 설치 및 빗물저류시설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지원대상이다. 특히 올해 초 전남지역의 유례없는 가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수시설 사업은 올해 집중 지원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면서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에 불편을 최소한으로 느끼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15개 작은 섬 이외에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작 은섬은 전북 군산·고창, 전남 고흥, 경북 울릉, 경남 통영·사천의 10개의 작은 섬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 모집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창업 자금과 보육공간, 멘토링,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총 7팀의 예비창업팀을 모집하며 선정시 팀당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류 심사 후에는 면접과 대면심사가 진행되며 최종평가 후에는 다음 년도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지원시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미창업자는 연령과 팀

당 인원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하면 된다. 오는 19일 오후 2시에는 광산구 송정동 '소셜캠퍼스 온 광주'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윤봉만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역량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